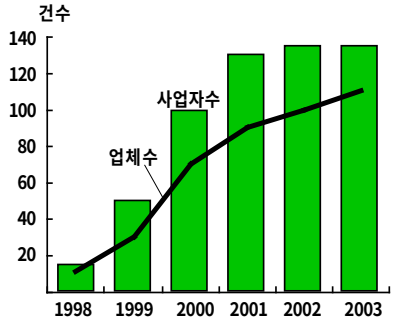
<VA협약> 에너지 사용절약 온실가스 배출감축

산업자원부는 7월말 현대자동차, 코오롱, LG화학 등 17개 제조기업(31개 사업장)과 1999년도 제1차 자발적협약(Voluntary Agreement)을 체결했다.
VA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협약이다.
미국 ·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VA협약 체결을 수년전부터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.
VA 체결기업은 1998년 시범협약 15개 사업장을 비롯해 46개 사업장으로 늘어났는데, 협약 체결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량은 산업부문의 22.9%를 차지하는 2100만TOE(석유환산톤)에 이른다.
VA 서명기업들은 1999년초 「자발적협약」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향후 5년간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· 제출, 「자발적협약 전문위원회」에서 평가 · 심의해 협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됐다.

VA협약 체결계획



VA협약 기대효과

(단위 : 억원, 1000TOE)

구 분	1999	2000	2001	2002	2003	누 계
투자비	6 217	4 053	6 198	6 671	7 164	30 303
절감량	608	570	853	877	943	3 851
절감액	981	897	1 311	1 328	1 465	5 982

체결기업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2900억원을 투자해 1998년 에너지 사용량의 14.5%인 57만 5000TOE를 절약하고, 199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1.6%인 47만TC(탄소톤)을 감축할 계획이다. 공정개선, 폐열회수설비 및 고효율기기설치, 폐타이어 등 폐기물 재활용, 청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목표를 이행한다.
정부는 협약체결기업에 대해 이자율 5.5%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(3년거치 5년분할상환)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, 산 · 학 · 연 합동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의 기술자문과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제고 홍보 등으로 협약내용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.
정부는 2003년까지 에너지를 5000TOE 이상 소비하는 800개 관련기업 중 약 70%에 해당하는 565개와 VA를 체결할 계획이며, 총 3조원을 투자해 매년 약 6000억원을 절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1999/12/6>